

# “올 성장률 4%대·일자리 30만개”

## 권부총리 전망...“금산분리는 지속돼야”

### 李당선인 공약 7%대 성장론엔 부정적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일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연간 4%대 후반의 성장에 예상되며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을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5%에서 다소 낮아진 것이다. 권 부총리는 또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이 지켜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언론사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서브프라임, 고유가 등 하방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소비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요인이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과 고용의 질적 개선 등으로 현재의 증가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설비투자는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계수주 등을 감안할 때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시장 부진 등 하방위험이 있지만 대형국책사업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은 올해도 두 자릿수의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취업자 증가는 내수 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

준인 30만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당연히 차기정부의 몫이지만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7% 성장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제학회 등의 지적이 있는 것을 참고해달라”고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 “조선·디스플레이·금융업종 유망”

## 증권사, 올해 비중 확대 의견

올해 조선, 디스플레이, 금융 업종이 증시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각 증권사들이 펴낸 ‘2008년 증시전망’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다른 업종을 놓고 대체로 의견이 분분하면서도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비중확대’를 투자전망으로 제시했다.

조선업종은 2007년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디스플레이업체들은 올해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이하며, 금융업종은 보험과 증권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수혜주인 조선업종은 후반기에 부활 현상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의 호조와 빠른 선거 상승이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대우증권 정기종·박준우 연구원은 “3년 반 이상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하고 있어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2008년에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권사들은 또 디스플레이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설비투자과 올해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따른 TFT-LCD TV 수요의 급증을 감안한 평가다.

삼성증권 김학주 연구원은 “중국은 베이징을 립박을 앞둔 상황에서 평판TV 보급률이 5%에 불과하다. 이는 PC 보급률 20%에 비해 크게 낮아 상승여력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과 증권이 일제히 증권사들의 추천업종 목록에 올랐다.

한화증권은 “은행에서 증권·보험으로 자금 이동 가속화, 인구 노령화 등이 증권과 보험업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 심재업 투자전략팀장은 “증권주는 인수합병(M&A) 테마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상승세가 기대되지만 시황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의 안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기아 ‘뉴모닝’ 시판 올해부터 경차 편입

기아자동차가 올해부터 경차로 편입된 모닝의 신규 모델인 ‘뉴모닝’을 2일부터 시판한다.

‘뉴모닝’은 경차 편입에 맞춰 그간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개발한 모델로, 2004년 처음 출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새로 선보이는 기아차의 야심작이다. ‘뉴모닝’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외관을 대폭 변경했으며, 고품격 편의사양은 물론 동력상능과 연비를 향상시킨 엔진을 적용했다.

특히 올해부터 경차로 편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등이 면제된다. 기아차는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94만7천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비는 기존 15.5km/l 보다 7.1% 향상시킨 16.6km/l (자동차기준)로 국내 경차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뉴모닝’의 가격은 716만~835만원이며, VAN모델은 677만원(이상 수동변속기 기준)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올해부터 경차로 편입된 기아차 모닝의 신규모델인 ‘뉴모닝’이 1일 서울 양재동 서울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2일부터 시판될 ‘뉴모닝’의 가격은 716만~835만원이다. <기아차 제공>

## 입사 할 회사 깊은 이해 보이면 면접장 인사담당자 감동 먹는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한 해 하반기에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베스트&위스트’ 지원자 사례를 모아 ‘이럴 때 인사담당자 감동 먹는다’=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사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마련이다.

GS칼텍스 인사담당자는 자사 경쟁력을 면밀하게 분석해 향후 회사가 취해야 할 중·장기 사업전략을 세운 지원자

를 모범사례로 들었다.

아모제 인사담당자는 채용이 진행되기 6개월 전 입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메일로 물어보고 실제 면접에서 자신이 아모제에서 일하기 위해 반년 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가며 이야기한 지원자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현대정보기술 인사담당자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에서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자신의 개인사를 담은 사진들을 ‘현대정보기술에 입사하기 위해 걸어온 길’이라는 콘셉트로 정리해 보

여 준 지원자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GS홈쇼핑 MD직군의 한 지원자는 ‘나를 판매한다’는 홈쇼핑의 방송형식을 빌려 자기 소개를 했다. 본인의 강점은 물론 입사 후 포부까지 상품정보를 제공하듯 진행해 면접관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이렇게 하면 당연히 떨어진다’ =구직자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이나 불성실함에 인사담당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원그룹 인사담당자는 면접장에 솔밭새를 풍기며 들어온 지원자가 가장 활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성 인사담당자에게 ‘언니’라고 호칭하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보였던 지원자도 최악의 사례로 꼽았다. /연합뉴스

# 새해 은행대출 더 깎아줄다

## 작년 무리한 대출 경쟁... 수익성 악화 우리銀, 신용대출 가산금리 인상 검토

작년 무리한 자산 확대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은행들이 올해 대출 제값받기에 나서고 있다.

일정한 수익이 확보되는 대출만 취급하기로 하면서 대출 가산금리 인상도 검토하고 있어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인사과에 반영되는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의 대출부분 점수를 폐지키로 했다. 종전 60점이던 대출 KPI를 없애

영업점 직원들의 무리한 대출 영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자산대비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이 1~2% 수준인 대출 위주로 영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원상 복구시키는 대신 5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수신부문 KPI는 작년 하반기 80

점으로 종전보다 배로 높은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20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금유치 실적이 뛰어난 영업점에 대해 인사과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수신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순이자마진(NIM) 부문 KPI를 신설하고 50점을 부여했다. 국민은행도 가계와 기업부문 대출 KPI를 종전 120점과 125점에서 100점과 80점으로 대폭 하향했다.

이에 반해 종전 70점과 75점이던 기업과 가계부문 수신 KPI는 120점으로 각 50점과 45점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 연초 정기 예금금리 일제히 인상

## 수협, 최고 연 7% 상품 판매

은행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올해도 증시 및 펀드로의 예금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예금유치에 나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일부터 두 달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7.0% 금리를 적용한다. 판매한도는 2천만원으로 대상고객은 5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개인 고객이다.

농협은 1월 한달간 정기예금인 ‘큰만족 실세예금’의 금리를 0.4%포인트 인상해 6개월 만기는 연 6.2%, 1년 만기는 연 6.4%를 적용한다.

하나은행도 2일부터 월말까지 2조원 한도에서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1년 만기는 연 6.5%, 6개월 만

기는 연 6.1%, 3개월 금리연동형은 연 5.9%로 기존 특판에 비해 6개월 및 3개월짜리 금리를 0.1%포인트씩 높였다.

신한은행도 1월 한달간 5천만원 한도로 최고 연 6.9% 금리를 제공하는 ‘골드마우스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 光銀 ‘새희망 특판예금’ 시판

광주은행은 2008년 새해를 맞아 금리 등에 혜택을 주는 ‘새희망 특판예금’ 상품을 2일부터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광주·전남지역 개인 및 법인으로, 가입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다.

예금 기간은 6개월~3년으로 금리는 정기예금의 경우 6개월~1년 미만은 최고 5.8%, 1~3년은 최고 6.3%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는 181일 이상의 경우 최고 6.0%, 365일 이상은 최고 6.5%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10만원 · 5만원권 디자인 예상도

10만원권 화폐

한국은행  
십만원

5만원권 화폐

한국은행  
오만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최종 확정해 2009년 상반기 중 발행키로 의결한 10만원권과 5만원권 도안.

## 새 고액권 도안 원권 도안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 T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1/02	062-360-5201
(주)한리메디칼	병원 영업 및 관리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3	062-262-3001
(주)비마트	2008년 매장관리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03	062-650-2203
ok웨딩클럽 광주센터	SK OK웨딩클럽 웨딩플래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3	062-223-0805
(주)캠스텍	[광주] 하남공단내 대기업 경비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04	062-364-6312
(주)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1/04	062-601-7213
덕충종합건설(주)	건설사무(입찰업무 중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05	062-522-0488
루멘리움식품건조기호농산물	영업사원/재택 주부사원/B2B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7	062-654-0630
lg전자	경리, 회계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08	062-654-4005
광주서광교회	교회 사무직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10	062-251-5005
(주)21프로미디어	음악 편곡에 자신있는 센스있는 분(편곡, 작곡, 작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10	062-224-0300
(주)HRN	[광주역앞-연2300만]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1/11	062-529-2671
옴가계	선반 경력자/cnc 선반	고졸/경력2년	1800~2000	01/12	062-720-7783
공정전자	본사 총무부 관리사무직/판매 영업 및 매장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14	062-223-347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새정부 ‘유류세 10% 인하’ 어떻게?

# 세법 개정 아닌 탄력세율 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새 정부 출범전 유류세 10% 인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이제 기정 사실화했다.

각 정당간에 인하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필요한 세법 개정보다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 현 유류세에서 10% 더 낮출 여유=유가인상과 관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유류세를 내리는 것으로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법정세율을 직접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전 임시국회에서 각 당당이 유류세 10% 인하에 합의하면 이뤄질 수 있으며 특히 유류세율이 낮아지면 여기에 붙는 교육세(15%), 주형세(32.5%)도 당당히 낮아지므로 전체적으로 유류와 관련한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어려워 법 개정을 할 수 없더라도 방법은 있다. 지금보다 교통세와 특수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교통세와 특수세에 대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금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법정세율인 l 당 각각 630원, 454원 대신 20% 정도의 탄력세율이 적용된 505원, 358원씩만 부과된다.

◇ 청외대 ‘탄력세율 수용 가능’=지난 1년 가까이 끊임없이 유류세 논쟁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을 깎아 유가인상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인하가 신·구 정부간 유류세 정책의 최대 공약수로 떠오르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10% 정도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정도까지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